

메시지 2

삼일 하나님과 완결되신 영에 관한 계시

성경: 요 1:1, 14, 29, 7:37-39, 14:7-20, 20:22

I. 요한복음은 삼일 하나님, 곧 근원이신 아버지와 표현이신 아들과 실재화이신 그 영을 계시해 준다 — 요 14:7-20.

A. 아버지는 근원이다 — 요 6:46, 7:29, 13:3.

1.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 요 1:18, 5:37, 6:46.
2.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고 아들 안에 있다 — 요 16:15.
3.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다 — 요 7:29, 6:57.
4.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표현되신다 — 요 14:7-11, 8:19.
5.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일하신다 — 요 14:10, 7:16.

B. 아들은 표현이다 — 요 1:18.

1. 아들은 하나님이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 요 1:1.
2.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 — 요 5:18.
3.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 요 10:30.
4.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다 — 요 14:8-9, 8:19.
5.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 — 요 6:57상.
6.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고 오셨다 — 요 6:38, 5:19-20, 30, 12:49.
7. 아들은 육체가 되시어, 은혜와 실재를 가져오셨다 — 요 1:14, 16-17, 8:32, 36.
8. 아들은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다 — 요 1:29, 36.
9. 아들은 사람들을 그 영 안에 침례 주셨다 — 요 1:33.
10. 아들은 생명이자 생명의 떡이다 — 요 11:25, 14:6, 6:35.
11. 아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다 — 요 12:24.
12. 아들은 그분의 양 떼를 얻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이다 — 요 10:14-16.
13. 아들은 그분의 신부를 위해 오시는 신랑이다 — 요 3:29-30.
14. 아들은 아버지께서 경작하시는 포도나무이다 — 요 15:1.
15. 아들은 죽으심으로 죄들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생수로서 곧 그 영으로서 흘러 나오셨다 — 요 19:34, 7:38-39.
16. 부활 안에서 아들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다 — 요 20:22.

C. 그 영은 실재화이다 — 요 14:17, 15:26, 16:13-15.

1. 그 영은 아들의 실재이다 — 요 14:16-20, 15:26.
2. 그 영은 아들의 온 존재와 아들께서 획득하신 모든 것을 받으시어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신다 — 16:13-15.
3.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그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마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 요 7:37-39, 4:10, 14.
4.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요 14:17-18.
5.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 요 14:17, 20, 17:23, 26.
6.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다 — 요 17:21-23.
7. 우리는 이 영에 의해, 그리고 실재 곧 우리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 요 4:23-24.

8.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거듭났으며,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경배한다 — 요 3:6, 4:24.

II. 요한복음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완결되신 영을 계시해 준다 — 요 7:39, 20:22.

- A. 완결되신 영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의 삼일 하나님이다 — 요 7:39.
1. 삼일 하나님께서 그 영이 되시기 위해 통과하신 과정은 경륜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 요 1:14, 히 9:14, 고전 15:45하.
 - a. 하나님은 결코 본질적인 면에서는 바뀌실 수가 없고, 오직 경륜적인 면에서만 바뀌실 수 있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과정을 거치셨다는 의미에서 바뀌셨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바뀌셨지만, 그분의 본질 안에서는 바뀌지 않으셨다.
 2.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단계들을 언급하고, ‘완결되셨다’는 것은 과정이 끝나쳐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완결되신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 — 요 7:39.
 3.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창 1:2), ‘그리스도의 영’(롬 8:9)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이신 그 영은 요한복음 7장 39절 당시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4.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 — 눅 24:26, 빌 1:19.
 5. 완결되신 영은 삼일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과 그분의 인간 생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복합체이다 — 요 7:39, 행 16:7, 롬 8:10-11, 빌 1:19.
- B.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완결되신 영을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 요 20:22.
1.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완결되신 영으로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 요 1:29, 20:22.
 - a.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은 7장 39절에서 예정되고, 14장 16절과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과 8절, 13절에서 약속된 그 영이다.
 - b.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변형되었고, 바로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다. 그 결과 그분은 제자들 안에서 사실 수 있고 제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으며, 그분은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제자들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 — 요 20:22, 14:19-20, 15:4-5.
 - c. 주 예수님은 그 영을 제자들 안에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제자들 안에 나누어 주셨다.
 - d.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신데, 왜냐하면 이 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숨이시기 때문이다. 그 영은 아들의 숨이다.
 - e.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고, 이 영은 우리의 숨이다.
 2. 숨이신 완결되신 그 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오직 숨, 곧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오직 숨, 곧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다 — 갈 3:2-3, 14, 빌 1:19, 계 2:7.